

편견 없는 시각으로 인류문명 정신적 뿌리를 밝힌 '이원복 교수 표' 교양만화

● 두산동아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시리즈



《신의 나라 인간 나라》(전 3권) 이원복 글·그림 | 두산동아 | 각권 250쪽 내외 | 값 각권 10,000원

윤상석 | 두산동아 단행본팀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매력은 어렵고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 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쉽지 않은 주제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부터 어린이까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시리즈는 9·11 테러가 터지고 얼마 후에 기획되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했다. 이원복 교수는 이러한 다른 문명간의 충돌원인이 문명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는 종교와 신화, 그리고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없기 때문이라 보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계의 종교와 신화, 그리고 철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타일의 '이원복 교수 표' 만화로 꾸미기로 했다.

'이원복 교수 표' 교양만화는 이미 많은 독자들이 읽었던 '먼 나라 이웃 나라' 처럼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재치와 위트가 넘치는 읽는 재미를 더한 4단의 만화를 뜻한다. 여기에 '신

의 나라 인간 나라' 시리즈는 '이원복 교수 표' 만화 최초로 완전 풀 컬러로 꾸며 새로운 스타일의 '이원복 교수 표' 만화를 탄생시켰다. 사실 기획 당시에는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를 컬러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망설였다.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는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글과 콘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글이 많고 그림이 4단으로 나뉘어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만화에 화려한 컬러로 덧칠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하지만 완성된 책은 그동안의 염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화려하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은 톤의 컬러만화는 흑백원고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글의 비중이 큰 일반적인 책들과는 달리 만화는 대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교양만화는 정확한 고증까지 필요하므로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유럽에서의 오랜 유학생생활과 '먼 나라 이웃 나라' 등 여러 권의 교양만

화를 만들면서 이미 많은 자료를 비축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원복 교수가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시리즈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 보충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유럽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을 할 당시 이 작품에 대해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 많은 우려곡절을 겪어야 했다. 편집과정 하나하나가 쉽게 넘어가질 못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우선 제목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신의 나라 인간 나라'가 좋을까? 아니면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좋을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만 '의'라는 조사 하나가 주는 어감이나 시각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기도 했다. 결국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신의 나라 인간 나라'로 낙찰되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인류문명 정신적 뿌리를 밝힌 '이원복 교수 표' 교양만화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 **한**



니체를 사랑하는 독자에게 온전히, 니체의 숨결을 전하고 싶다

● 책세상 '니체전집'



니체전집 (전 21권) 프리드리히니체 지음

문선휘 | 책세상 편집부

니체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00년 8월 25일, 책세상에서는 니체전집의 첫 권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출간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5년의 긴 행보를 끝내고 2004년 책세상 니체전집(전21권)이 완간될 예정이다. 1969년 휘문출판사에서 국내 첫 니체전집이 간행되었고, 1982년에 청하출판사에서 두 번째 전집이 출간되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세 번째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다시 니체전집인가? 앞의 두 전집은 전공자가 아닌 역자들에 의한 임의적인 번역이거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정제되지 않은 주석을 붙여 니체의 사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불행히도 우리는 니체 사상의 진면목을 접할 수 없었다.

195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니체 연구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니체는 5천여 쪽 분량의 유고를 남겼는데, 그 중 극히 일부가 《권력에의 의지》와 《생성의 무죄》라는 표제로 편집, 소개되었을 뿐이다. 특히 《권력에의 의지》는 비전문가가 임의로 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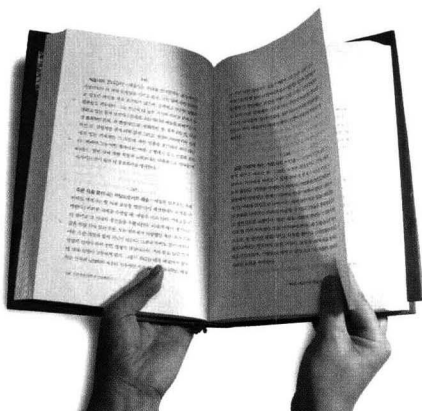
집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편집본을 해체하고 첨삭과 임의의 편집 없이 니체의 모든 글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새로운 니체전집의 필요성이 분명해졌고 이러한 욕구에 부응해 새로운 전집이 독일의 발터 데 그루이터사에 의해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동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잘못 편집된 기존의 편집본들이 니체의 모든 것인 양 인식되고 있었다. 분명 새로운 전집, 말 그대로의 니체전집이 필요했다.

1998년 겨울, 니체를 전공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책세상 니체전집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독일에서 니체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국내에 니체학회를 창립하기도 했던 정동호 교수(충북대 철학과)를 위원장으로, 이진우 교수(계명대 철학과), 김정현 교수(원광대 철학과), 백승영 선생(서강대 강사)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현재 니체전집의 정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발터 데 그루이터사의 '니체 비평전집(Kritische

Gesamtausgabe Werke' 중 서지학이나 철학적 내용과 상관없는 글 등은 배제하고 철학적 저술을 중심으로 21권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니체의 철학적 저작의 바탕이 되었거나 구상중이었던 유고 11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오던 니체 철학의 개념과 국내 학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들, 이를테면 번역상의 용어나 개념의 오류를 바로잡고 통일안을 마련했다. 또한 니체의 비유와 상징들이 나타내는 바를 역자의 개입 없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니체를 있는 그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주를 가능한 한 배제하기로 했다.

얼마 전 한 선배는 이제 한국출판도 기획자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20세기 철학의 문예인 니체의 저작을 통해 사상사적 궤적을 더듬을 수 있는 전집. 이것은 출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니체를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독자의 꿈이지 않을까. 이제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제 빛 제대로 발하기를 바라며 다시 살리는 책

● 다섯수레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나카지마 아츠시 지음 | 명진숙 옮김 | 신영복 감역 | 이철수 그림 | 다섯수레 | 256쪽 | 값 8,000원



다섯수레 출판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독자로서 매력을 느낀 책이 몇 권 있다. 그 중 하나가 나카지마 아츠시의 <산월기> <명인전> <제자> <이능> 등의 중단편을 모은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다. 중국의 고전이 일본의 천재작가를 만나 신영복, 이철수 선생의 손길과 붓질로 우리말로 선보이게 된 책이다. 책을 둘러싼 이들의 이름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내용 또한 깊이가 있고 알차다. 하지만 나온 지 10여 년이 넘는 이 책은 내용이 갖는 무게만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먼저 나온 《사람아, 아 사람아!》가 여전히 왕성하게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맥없이 '죽은 책'이 된 셈이다.

처음 이 책을 읽은 게 대학생 때였다. 그때나 이때나 다시 읽어봐도 충실한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읽으면 맞춤일 듯해 다시 살리고 싶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약간의 재능만 믿고 세상을 알보다가 본모습을 잃고 수성만 남은 시인이정의 이야기를 담은 <산월기>는 일본의

국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교훈적인 까닭이다.

물론 교훈만 담은 것은 아니다. 명궁으로 명성을 얻고자 머릿니가 말로 보일 때까지 두 눈 부릅뜨기를 하는 등 강훈련을 불사하지만, 결국 '지위는 행하지 않는 것이고, 지언은 말하지 않는 것이고, 지사는 쓰지 않는 것'이라는 경지에 이른 <명인전> 기창의 이야기는 무협소설을 읽는 듯 흥미진진하고, 유머소설을 읽는 듯 재미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자>이다. 광말약 선생이 지은 《역사소품》 속에 등장하는 공자는 식사 준비에 바쁜 제자 앞에서 품위를 유지하기 바쁜 성인으로 풍자되었지만, 이 책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스승인 공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는 제자 자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사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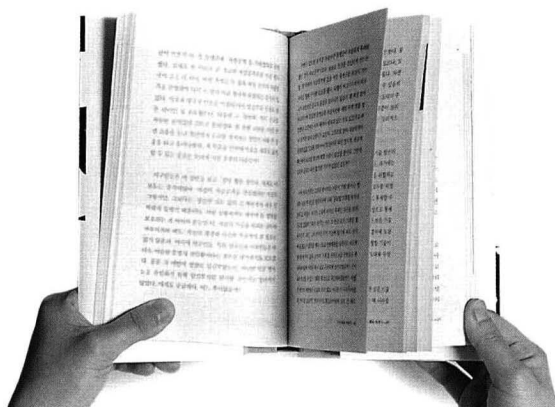
막상 책을 살리고자 하니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한자에 약한 학생들이 한자가 많이 나오는 이 책을 읽기도 전에 지

고은경 | 다섯수레출판사 편집기획팀 팀장

레 버거워할까봐 걱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 수준의 한자말에서는 한자 병기를 자제하고, 한문 번역투의 문장은 좀더 다듬었다. 물론 번역가 명진숙 선생의 문체가 주는 고풍스러움은 되도록 살렸다. 드라마 <다모>와 <대장금> 열풍으로 고어체를 즐기는 청소년에게 또 다른 기쁨 있는 문체를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오래 두고 볼 수 있도록 양장본으로 만들기로 했다. 흑과 백의 강렬한 대비로 주제를 전달하는 이철수 선생의 판화 그림을 파스텔 색으로 응용해 무겁지 않으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밝은 표지로 구성했다.

이미 만들어진 책을 다시 살리는 것인데도 여러 손길이 닿았다.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이모티콘이 울고 웃는 '멋있는 그놈' 이야기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모조록 슬로우푸드 같은 영양가 만점의 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



유쾌하고 철학적인 ‘그 개’의 로드무비에 박수를!

● 우리교육 《그 개가 온다》



《그 개가 온다》 크리스티네 뉘스틀링거 지음 | 유타 바우어 그림 | 김경연 옮김 | 우리교육 | 218쪽 | 값 7,000원

정우진 | 우리교육 청소년 교양팀장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읽어야 하는 소설들이 꼭 '성장'이라는 키워드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청소년기에 꼭 꼭 씹어 먹어 놓으면 언젠가 일용할 양식이 될, 그러한 책이 결국 '청소년 소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학선을 표방한 '우리문고'의 《그 개가 온다》는 특별하다.

크리스티네 뉘스틀링거(우리에게 《오이대왕》으로 유명한)의 《그 개가 온다》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늑수그레한 '그 개'의 모험담이다. 편견이 가득한 술집, 세상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여 주는 극장,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학교, 병원, 모순과 차별이 가득한 정치판을 가로지르면서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그러나 지나치고 있는 세상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장뜨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또 길을 떠나는 한 마리 개의 로드무비다. 또한 특별한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개와 돼지가 친구가 되고, 곰과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판타지이기도 하

다. 한편으로는, 함께 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온갖 모험담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개'의 '자아찾기' 여행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장기의 아픔과 그를 통한 성숙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신나는 모험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와 '타인', 그리고 '나'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신나는 철학서이기도 하다.

책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본문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단도여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사실 그림의 스캔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원서의 컬러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때마다 '이거 대박 나면 꼭 컬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했다. 하지만, 성장소설에만 익숙한 우리 독서문화 때문인지, '우리문고'의 인지도가 아직 크지 않아서인지 생각만큼 책이 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꿈을, 자신감을 갖고 있다. 독자들에게 조금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꼭 컬러로 개정판을 내리라고... 이런 형편이니 컬러 개정판이 나오게 해주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개가 온다》를 꼭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은 편집자로서의 욕심이 있다. 이 소설은 아이, 부모, 형제 모두가 함께 신나게 보고, 가끔씩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참! 그 개는 어떻게 했더라?"면서 한번쯤 떠올릴,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청소년 소설'은 무겁지만도, 너무 일상의 재미난 이야기만 모아 놓은 것도 아닌, 그런 소설이 아닐까 한다. ☞

